제사장 위임식과 국무총리 수난사

(출29:1~37)

1.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2.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3.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4.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6.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7.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8.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제사장 위임식과 국무총리 수난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국무총리 수난사'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4월부로 이 완구 국무총리께서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역대 최단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소위 성 완종 선물 리스트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서, 박 근혜 대통령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박 근혜 정부 들어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국무총리 수난사의 결정판이 되어버렸습니다. 5년 대통령 임기 중에 아직 2년 반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벌써 2명의 총리가 사퇴를 했고 3명의 총리후보자가 낙마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냈던 김 용준 씨로 헌법재판소 소장 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닷새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전관예우 특혜를 받았고, 부동산투기의 의혹이 있다고 해서 낙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 홍원 총리가 취임을 했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2월 26일에 취임을 하고는 4월 27일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조건부로 사임을 수용한 상태에서 안 대희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이 되었는데, 2013년 변호사 생활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

입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문회 자리에는 앉지도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나버리고 맙니다. 또 중앙일보의 언론인으로 있었던 문 창극 후보자가 지명되었지만 역사인식논란으로 역시 낙마하게 됩니다. 정 홍원 총리가 사임을 한 상태에서 어정쩡한 모양새로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이 완구 후보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만 병역특혜, 언론외압논란 등 가까스로 인준을 통과했는데, 성 완종 선물 리스트에 연관되어서 사실상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기고 퇴진하게 됩니다. 꼭 최후 심판대 같이 총리로 지명을 받는다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일들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총리가 되기는커녕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창피한 일들만 밝혀진 채로 끝났으니 누가 총리하겠다고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잡혀갔다는 소리가 없는 걸 보니 현행법상 범법을 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단지 공직자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잣대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박 근혜 대통령이 검증도 안 된 자를 후보로 내세우는 인사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어지간히 비난을 받습니다. 다른 한 쪽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목소리를 낮춰서 어차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가 국무총리로 위임받고 취임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만, 국무총리 수난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저 그분들의 문제로 놓고 우리 문제를 본문에 근거해서 생각해봅니다.

국무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로 영어로는 'Prime Minister'라고 합니다. 본문 1절에 "섬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minister가 섬긴다는 말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위로는 대통령을 섬기고, 아래로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만백성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Prime Minister의 자리는 2인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둘이라는 것으로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온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일신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로 하나님 한 분 아래에 있으면서 선민 모두를 섬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위에 있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인데 위에 있어야 권력도 주어지고 권세도 주어져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를 Prime Minister라고 하는데 minister이라는 말이 장관, 성직자를 뜻하기도 하므로 연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국무총리의 취임과 비교해 볼 때에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제사장은 도덕적으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일을 돌보는 정치인도 엄격하게 검증을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의 도덕적 기준치의 가파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역할이 종교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자리가 아니고, 특히 오늘 아론이 위임받게 되는 대제사장 자리는 예수님 당시에는 대통령 부럽지 않은 자리로 이스라엘의 최고의결기관인 산헤드린공회의 의장직을 겸하게 됩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자리와 신분의 위임식이 참

으로 차별화 되고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대통령도 죄인이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회의원도 다 죄인인데 그들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에 현행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는 그 후보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후보들의 죄를 들춰내시려고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으로 티끌만한 것 까지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분위기가 국무총리 취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분위기와는 너무 다른 것은 죄를 들춰내서 적합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위임을 위한 첫 단계가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직의 위임 전까지 그 동안의 모든 죄를 다 덮는 속죄의 제사가 첫 단계가 됩니다.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이 다른 사람보다 뭐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숭배를 앞서서 주도한 자로 이 사람이 대제사장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들에게 적용하는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볼 때에 선민의 나라 대제사장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인간의 죄를 알고 계시 때문에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차원에서는 우열과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 죄를 속죄하고 덮어서 거룩한 직무를 행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 위임식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올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우리도 영적으로 만인제사장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으로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들의 위임식이 되는 것이고, 만인제사장시대의 선민위임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민과 교인은 다릅니다. 선민은 지금 교회 바깥에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선민임을 나타낼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거나, 오게 될 것이지만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선민이 아닌 것은 교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의 일개 조직원으로 살다가 끝나는 실제 선민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민과 선민이 아닌 교회 조직원으로의 차이는 이 위임식의 과정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느냐, 아니냐의 구분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시면 이 위임식의 똑같은 절차를 "일주일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반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여기에 적용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 반복되는 것은 아론에서부터 이어지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 의미를 평생 동안 완전하게 이어나가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곱 번을 반복해서 그 의미를 완전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평생 그 의미가 기억되어야 하고, 살아서 활성화되고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누가 선민이고 누가 선민이 아닌 교인입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의미를 반복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합니다. 참 희한하죠.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 받을 때의 의미가 지금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사장님을 대하든, 부장님을 대하든, 친구나 이웃이나 아내나 자식이든 누구를 대하든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람을 섬기는 Prime Minister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위임받은 선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로 하여금 Prime Minister가 되게 하는 하나님 한분만을 위로 모시고, 그 분의 뜻을 받아 모든 사람을 섬기려면 세 가지의 제사를 반복해야 하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수소를 잡아서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각각 숫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며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속죄제'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위임받기 전까지의 모든 죗값을 다 용서해주시는 과정으로 죄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덮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니 문제시하는 것은 그것을 속죄해서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국무총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는 잘못이라면 죄를 드러내서 알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는 그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로라도 더욱 더 충실하고 정직하게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온 나라와 국민을 섬기라고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세 가지 제사가 관통하는 포인트는 바로 죄입니다. 이 위임식의 절차가 그 의미를 따라서 우리 안에서 반복되며 활성화 되고, 내가 만인제사장시대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선민의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속죄 받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에 이야기했습니다. 열 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실제로 아홉 가지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계명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으로 불리는 자들만이 아니고, 루터의 말을 빌리고 성경적인 모든 증언이 가리키고 주님께서도 마6: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것처럼 재물을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재물을 섬깁니까? 재물이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것이 다른 신입니다. 내가 자식, 자식하며 살고 있다면 자식이 다른 신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에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을 아름답게 가꾸고, 남자들은 근육을 자랑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지금 다른 신을 담고 있는 인격적 존

재 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첫 번째 경쟁자가 재물입니다. 재물을 예로 들자면 "머니 머니해도 돈이 최고다.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존재의 상태입니다. 내 손에 돈이 있건 없건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존재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판단, 생각, 말, 행동, 감정, 의지들이 다 범죄로 신용카드 포인트가 늘어나는 것처럼 죗값을 쌓아가는 것이고, 돈을 마음에 담은 채로 돈이 벌렸다고 좋아하며 웃고 있다면 죗값의 포인트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담은 채로 돈이 안 벌린다고 걱정하고 있으면 죗값의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신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으로 재물이 아닌 자식을 담고 있어도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리고 범죄는 그 죄의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범죄입니다. 판단, 생각, 말, 감정, 의지, 울음, 웃음까지 다 범죄가 되고 죗값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뭔가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한다면 내 마음이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죄의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범죄로서의 죗값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은 어떤 사람이냐?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소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을 내가 배부르게 먹었다면 자식을 향해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없고, 자식이 들어와 있고 일류대학이라는 가치가 들어와 있으니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위임식이 3500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만인제사장을 가능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 속죄제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히브리어의 '올라'라는 단어로 우리말의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불로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번제로 다른 신을 담고 있던 나의 존재가 다 타서 죽으면 이제 내 순수해진 영혼만 남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이게 번제예요. '화목제'는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만민을 섬기는 자리로 임하게 된다는 것으로 오늘 날에도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에 속죄가 됩니다. 내가 돈을 소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얼른 십자가에서 죽어야 속죄가 되는 동시에 번제가 일어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기도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돈을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벌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자동차를 멋진 것을 타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으로 더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주

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원을 바꾸는 것이 우리 마음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화목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충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돼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으로부터 뭘 좀 받고 싶어 한다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 수난사에서의 인사청문회 과정과는 다르게, 우리는 국무총리 후보자보다 더 많은 악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사건을 통해 제사장으로 위임하십니다. 이 위임은 일곱 번 반복되는 것처럼 날마다, 날마다 반복되어서 의미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알아야하고, 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속죄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처럼 희어진다는 것을 믿고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의미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세상을 향해 사람을 섬기는 Prime Minister 대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이어지는 제사장 위임식의 규례에 담겨있는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활성화됨으로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활성화시켜주시옵소서. 3500년 전의 위임식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게서 재현됨으로서 선민 위임식이 끝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만인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